

Human Genome 시대에 부응하는 四象體質醫學의 역할과 치료정신

송 일 병*

Abstract

The Role and Treatment Mind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Human Genome Age

Song Il 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s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role and treatment mind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human genome age, through summarizing recognition of human and etiology · treatment on diseases proposed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Dong-mu's chief medical writings such as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3. Results and Conclusions

1. The outlook on huma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completed in the base on Confusianism and it recognized that human is consisted with congenital element based on 'Human nature-shape' and acquired element based on Knowledge-Acting. Dong-mu emphasised acquired element than inborn element.

2.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thought that we can overcome inborn limitation of each constitution through moral culture of aposteriori Knowledge-Acting. and that self-correction is methods which is applied to treatment of disease recovering Essential Qi of each constitution with moral culture of personality

3.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recognizing Essential Qi by main standard that foretell prognosis of disease and emphasize recovery of Essential Qi through self-correction than way of 'Assisting-Good Qi' and 'Removig-Bad Qi' in treatment of disease.

4. Self-correction can be divided into non-herbal self-correction and herbal self-correction. Non-herbal self-correction is to control greed by aposteriori Knowledge-Acting and herbal self-correction is to recover Essential Qi by herb.

5. It is thought that the present constitutional disease is consisted by accumulating life habit nature of a disease of ordinary times,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at present constitutional disease is treated through administration of life habit nature of a disease of ordinary time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6. Treatment mind to correct oneself into Golden Mean through controlling Knowledge-Acting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ay get into important treatment guide of gene medicine age.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송일병.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전화) 958-9232

E-mail : ibsong@khmc.or.kr

I. 緒論

기존의 한의학은 도교를 기반으로 하여 氣裏形表의 우주관과 질병관을 주로 제시한데 반하여, 東武 李濟馬는 유학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四象醫學을 완성하고 체질론적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東武 李濟馬의 체질론적 인간관은 선천적인 人性·人形에 기반하여 太少陰陽人의 臟腑性理의 편차를 인식한 존재론적 인간관과 후천적인 知行의 수양을 통해 선천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행위론적 인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東武 李濟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존재론적 인간관보다는 행위론적 인간관을 강조하였다.

서양의학에서도 멘델 이후에 유전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다가 1953년에 왓슨과 클릭에 의해 인간의 세포에서 DNA의 염기서열이 인간의 중요 유전자임을 밝혀지고 2000년에 발표된 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의 구조는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규명도 미흡한 상태이며,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이 규명되어도 치료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를 중심으로 선천적인 취약점이 밝혀진 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천적인 극복 방안을 찾아냄에 四象醫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東武公이 제시한 四象醫學에서의 인간관·질병관을 정리하고 사상체질의학이 현대의 유전 의학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알아보겠다.

II. 本論

최근 서양의학의 연구는 유전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학은 각 개체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의해 각각 선천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전자의 특이성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유전학은 인간의 천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질병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은 유전학과 유사하게 각 개체의 선천적인 체질 차이점도 중시하나, 유전학과는 달리 후천적 知行의 노력에 의해 선천적 체질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천적으로 藥物的·非藥物的의 正己를 실행하면 선천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四象醫學의 인식론은 유전학 시대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四象醫學의 人間觀

東武公은 세상과 인간을 事心身物·天人性命·上下左右¹⁾·大小遠近²⁾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기능·구조나 시간·공간의 개념으로 세상과 인간을 四元構造로 요약하려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에 기반한 구조·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을 인식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東武遺稿·膀胱」
“膀胱物也 腰膂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2) 「格致藁·儒略」
“物萬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표 1. 天人性命의 四象構造

大同	天機	耳聽天時 (極薄)	日時世會 (極大)	鼻嗅人倫 (極廣)	口味地方 (極遠)	耳目鼻口 觀於天也	耳目鼻口 好善無雙
各立	人事	肺達事務 (克修)	脾合交遇 (克成)	肝立黨與 (克怒)	腎定居處 (克治)	肺脾肝腎 立於人也	肺脾肝腎 惡惡無雙
博通	性(知)	領有籌策 不可驕	聰有經綸 不可矜	膽有行檢 不可伐	腹有度量 不可夸	領聰膽腹 行其知也	領聰膽腹 邪心無雙
獨行	命(行)	頭有識見 必無奪	肩有威儀 必無侈	腰有材幹 必無懶	臂有力略 必無竊	頭肩腰臂 行其行也	頭肩腰臂 忘心無雙
		宜戒奪心	宜戒侈心	宜戒懶心	宜戒竊心		

東武公은 인간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이해를 위해 우선 四象醫學에서 인식한 인간관을 정리하면, 四象醫學은 인간을 人性·人形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론적 요소와 知行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존재론적 요소는 선천적 체질요소이며 행위론적 요소는 후천적 가변요소이다.

(1) 존재론적 인간관

東武公은 萬物은 천부적으로 物과 則을 부여받는데, 인간에서 物에 해당하는 것이 ‘人形’이며 則에 해당하는 것이 ‘人性’이라고 인

식하였다³⁾. 人性·人形은 천부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론적인 요소이고, 천부적인 체질은 각자의 臟理⁴⁾와 心慾⁵⁾의 편차에 의해 네 가지로 분류된다. 人性·人形에 기반한 존재론적 인간관은 人性(心·心身)에 해당하는 性情·知行과 人形(事·心·身·物)에 해당하는 四象人의 知行之象을 통해 四象體質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人性·人形에 의한 人間觀

人形	四象	事·心·身·物	知行之象	太湯之知 知而過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人性	兩儀	心身	知行 (身)	脈(學)	肺知事務 肺行籌策
				脾(問)	脾知交遇 脾行謀猷
				肝(思)	肝知黨與 肝行材幹
				腎(辨)	腎知居處 腎行便宜
太極	心	性情	心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鄙薄貪懶 私慾之四偏)	

(2) 행위론적 인간관

東武公의 인간관은 천부적인 취약점도 후천적인 知行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⁶⁾고 인식하고, 후천적으로 知行의 수양 여부에 따라 각자의 命의 양상⁷⁾이나 吉凶도 결정된다⁸⁾고 인식하였다.

東武公은 身의 肺脾肝腎에서 이루어지는 學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通』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謂之太極”

4) 『東醫壽世保元·四端論』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名曰少陰人.”

5) 『東醫壽世保元·四端論』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

6) 『東醫壽世保元·四端論』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

7)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命者 命數也 善行則 命數自美也. 惡行則 命數自惡也 不必卜筮而 可知也. 詩云 永言配命 自求多福 卽 此義也.”

8) 『東武遺稿·教子平生箴』
“寡慾力行 遇事求知 知多心活 慾多心傷. 修之者吉 不修者凶.”

問思辨을 知行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中庸』의 學問思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中庸』에서는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을 실천함으로 誠을 완성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밝아지고 약한 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⁹⁾고 하였는데, 이러한 『中庸』의 내용을 바탕으로 東武公은 사람이 肺脾肝腎의 후천적 知行을 修養함으로 선천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善思·敬行’¹⁰⁾이나 ‘明知·誠行’¹¹⁾으로 표현되고,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風寒을 조심하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히 하며, 만족하고 그칠 줄을 알면’ 어떤 고질병도 고칠 수 있다¹²⁾고 언급하였다.

또한 인간이 酒色財權을 멀리하고 知行을 修養하여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등을 원만하게 유지함으로 肺脾肝腎의 臟氣가 ‘안으로 精靈을 보존하고 밖으로 事物과 응하게’ 하면¹³⁾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四象醫學의 人間觀은 人性·人形에 기반하여 각 체질별 선천적 특성을 제시하고, 선천적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後天的 正己를 강조하는데, 이중 知行을 통한 非藥物的 正己를 주로 강조하고 있다.

2. 四象醫學의 疾病觀

9) 「中庸」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 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三統」

“善思可也 敬行可也 善思不銳 敬行不殆 善思醫也 敬行藥也 善思活血 敬行順氣則 可也。”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所作者 其欲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百病皆有限 有二三日病 有三四日病 有二三年之病 有十餘年之病 慎攝風寒 平心靜意 知足知止則雖是膏肓之病豈無必愈道乎。”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問 居處行身夫婦長幼等事有關疾病乎? 曰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爲酒色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

四象醫學은 기존 證治醫學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病因에서도 기존 證治醫學은 六氣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비하여 四象醫學에서는 각자의 心慾이나 臟局의 편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치료에서도 扶正祛邪가 아닌 각 체질별 正己를 통해 體質正氣를 확보함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四象醫學은 素證과 現證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素證이 누적되면 現證을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素證의 관리를 통하여 現證을 치료·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1) 四象醫學의 病因觀

東武公은 心慾과 酒色財權을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酒色財權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간은 각자 다른 性氣의 양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人事에서 能·不能의 차이를 보이게 되며, 여기서 慾心·放心이 형성되며 酒色財權에도 빠져 질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양상도 각 체질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東武公의 病因觀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事物(開物成務)										
性氣		恒欲進而不欲退		恒欲舉而不欲措		恒欲靜而不欲動		恒欲處而不欲出		
↓										
身	知行(情氣)	安身 自己獨得之性 惟知命者不然	人事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點			
			欲心	忿懼之心 詐於居處	憂患之心 懶於黨與	恐懼之心 侈於交遇	好樂之心 嗇於事務			
		接人 與人相接之性 有盡性者不然	人事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放心	驕於交遇 放縱之過也(怒)	傲於事務 自私之過也(哀)	侮於居處 物欲之過也(樂)	譎於黨與 安逸之過也(喜)			
	↓									
	酒色財權		爲人懶怠 必嗜酒食(勤幹)	爲人嬌奢 必耽侈色(簡約)	爲人貪慾 必慾貨財(聞見)	爲人偏急 必擅權寵(警戒)				
↓										
酒色財權에 의해 偏小之臟을 損傷										
↑										
心	心氣	怠慢 恭敬	心氣短促(飲食·衣服·筋力·財物)							
			心氣長遠(心の 中和, 事事盡善 節節必中)							

이상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東武公은 心慾과 酒色財權이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이외에도 각 체질별 臟局의 편차도 발병에 주요 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水穀之氣를 담당하는 脾胃와 氣液之氣를 담당하는 肝肺¹⁴⁾의 升降緩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¹⁵⁾, 太陽人은 固中이 안되고, 太陰人은 通外가 안되며, 少陽人은 清腸이 안된다고 인식하였다. 고, 少陰人은 溫裏가 안되어¹⁶⁾ 질병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2) 四象醫學의 治療觀

病因에서도 알 수 있듯이, 四象醫學은 질병의 치료에서도 각 체질의 偏小之臟의 本常之氣인¹⁷⁾ 命脈實數의 회복을 강조하였으며¹⁸⁾, 命脈實數의 회복은 약물적 방식과 비약물적 방식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치료 방식은 命脈實數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¹⁹⁾, 이 두 가지 치료방식 중에 비약물적인 방식을 더욱 강조하였다. 약물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通』
“脾以納 腎以出 脾胃者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散充氣道之門戶也.”
15)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
“嘗見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其效如神. 其他諸病之藥 不能速效者 針能速效者 有之. 蓋 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 應用之穴而必有升降緩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 後之謹厚而好活人者.”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太陰之藥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宜清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宜固中不宜通外 少陰之藥宜溫裏不宜清腸.”
1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參苓杞菊等藥性淡平 有病可以久服常服而 亦有時間斷以安臟本常之氣.”
1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太陰之藥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宜清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宜固中不宜通外 少陰之藥宜溫裏不宜清腸.”

적 방식은 주로 환자의 命脈實數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하고, 이때도 환자의 臟氣에 부합되는 정도로 약물을 사용할 것²⁰⁾을 강조하였다. 각 체질별로 제시된 약물치료의 예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偏小之臟의 保命之主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약물치료

계 격	증상과 응용약물	작 용
太陽人	八九日大便不通證 當用 獼猴藤五加皮湯	氣液之氣의 固中 촉진 (吸聚之氣의 확보)
太陰人	運氣病五六日 片汗不出則 熊膽不可不用	氣液之氣의 通外 촉진 (呼散之氣의 확보)
	語靜微低而 腦膜阻塞則 瓜蒂不可不用	
少陽人	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不可不用	水穀之氣의 下降(清腸) (陰清之氣의 확보)
	丹毒紅粒遍體 煩燥而不寧則 石膏不可不用	
少陰人	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則 桂麥不可不用	水穀之氣의 上升(溫裏) (陽煖之氣의 확보)
	乾靨亂 面色帶青而上下不通則 巴豆不可不用	

四象醫學의 치료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體質病證이다. 體質病證은 초기에는 素證을 통하여 질병의 인식하려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것이 후에 現證중심의 體質病證으로 완성된다. 東武公의 초기서적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素證의 양상을 통하여 病證의 단계와 輕重險危, 進退를 분류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는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素證중심의 病證認識

無病-有病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陰人飲食善化則完實而無病 少陽人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 太陰人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 太陽人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 太陰人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太陰人少陽人 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
病의 進退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陽人病 小便赤黃則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其病退也. 少陰之病 面色膩津則其病進也, 太陰之病 面色膩津則其病退也
平時病-病中-病解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陰人平時屢噫者病也 霍亂時屢噫者病解也. 太陰人平時屢咳者病也 重病時屢咳者病解也. 少陽人大便澀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非惡症也. 太陽人小便澀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非惡症也
病의 吉凶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人中之汗不汗也. 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月寸外之汗不汗也. 太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觀上之汗不汗也. 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觀於外腎之汗不汗也.
病의 輕重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陰人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陽人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 • 少陰人有暴泄瀉瀉過三日則其病必重 少陽人有久泄瀉瀉雖月餘 其病輕也.
重病-急病의 症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陽人重病中 無口味 忽大飽食 有口味者 此壞症也. 循衣摸床諸般凶症 不遠皆偏而必死. 但稍稍小食吉兆也. • 太陰人急病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危證也 但身溫而頂顛項背次第得汗者吉兆也. 太陰之汗 始於頂者可喜也 中於顛者免危也 終於背者病愈也.
特定症에 의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如太陰人瘧疾惡寒時飲冷水 發熱時不飲冷水, 少陰人瘧疾發熱時飲冷水 惡寒時不飲冷水. • 少陰之外感鼻涕太多 太陽之外感鼻涕太少, 少陽之外感肢節重痛 太陰之外感肢節微痛.

이러한 素證 중심의 의학이 발전하여, 후에 現證중심의 體質病證으로 완성되어 각 체질별 病證과 이에 따른 치료원칙과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三統』
“牢獄之病 醫藥先務也 調理次第也, 內傷之病 調理先務也 醫藥次第也.”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六統』
“塗壁之客土與主土不成完全則數三月後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不成完全則一半年後藥氣與臟氣俱竭 故峻補輕粉參茸等藥不可屢用 用之者一二年間尤極攝身 期于藥氣與臟氣完全 然後保無虞.”

표 6. 現證중심의 病證認識

太陽人		少陽人	
外感腰脊病	戒深哀 遠嗔怒	脾受寒表寒病	表陰降氣
	解休證 五加皮壯脊湯		解休兼噎膈
內觸小腸病	遠嗔怒斷厚味	胃受熱裡熱病	裡陽升氣
	噎膈證 彌猴藤植腸湯		噎膈兼解休
太陰人		少陰人	
胃脘受寒表寒病	肺陽升氣	腎受熱表熱病	升陽益氣
	背佳頁表病證 麻黃發表湯 (背佳頁表病) 熊膽散 寒多熱少湯 (寒厥)		胃脘寒證 太陰調胃湯+升麻 黃芩 病解後 調理肺元湯 麻黃定喘湯 (哮喘) 麻黃定痛湯 (胸腹痛)
肝受熱裡熱病	清肝燥熱	胃受寒裡寒病	裡陰降氣
	燥熱證 熱多寒少湯 (消渴 虛勞夢泄) 葛根解肌湯 (陽明經病 陽毒發斑) 清心蓮子湯 (虛勞夢泄) 清肺瀉肝湯 皂角大黃湯 (瘟病增寒壯熱 燥澁)		陰血耗竭證 鹿茸大補湯 (陰血耗竭表證多) 拱辰黑元丹 (陰血耗竭裡證多)
		鬱狂證 川芎桂枝湯 芎歸香蘇散 十全大補湯 巴豆+八物君子湯 獨蔘八物君子湯	
		亡陽證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脾弱) 升陽益氣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太陽厥陰)	
		太陰證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蘇合香元 理中湯 十二味寬中湯 巴豆如意丹	
		少陰證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獨蔘附子理中湯	

四象醫學의 疾病觀에서는 주요 病因이 되는 心慾·酒色財權·臟局의 편차를 체질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藥物的 正己를 중심으로 非藥物的 正己를 병행함으로 體質正氣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素證를 관리하여 現證을 치료·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III. 結論

1. 四象體質醫學의 인간관은 유학을 기반으로 하여 완성되었으며, 人性·人形 중심의 존재론적 인간관과 知行 중심의 행위론적 인간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에 행위론적 인간관을 존재론적 인간관보다 중시하였다.
2. 四象體質醫學은 선천적 臟腑大小에 의한

취약점을 후천적인 知行的 자율적 조절(正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正己를 인격수양과 질병의 치료·예방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3. 四象體質醫學은 命脈實數를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하고, 질병의 치료에서도 ‘扶正祛邪’의 방식보다는 正己를 통한 命脈實數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4. 正己는 藥物的 正己와 非藥物的 正己로 나누어지며 非藥物的 正己는 知行을 통하여 心慾을 관리하는 것이며, 藥物的 正己는 약물을 통하여 保命之主를 확보하는 것이다.
5. 四象體質醫學에서는 평소의 생활습관병증(素證)이 누적되어 現證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素證의 관리를 통하여 現證을 치료하는 것이다.
6. 따라서 生活속에서 知行的 중용적 조절을 통한 四象人의 體質正己정신은, 오늘날 Human Genome시대의 의학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IV. 參考文獻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李濟馬, 서울, 한문화사, 2000
2.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刊行), 李濟馬, 서울, 한문화사, 2000
3.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 影印本, 李濟馬, 서울, 대성문화사, 1998
4. 四象醫學,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서울, 집문당, 2001
5. 東武遺稿, 李濟馬(이창일 역주), 서울, 청계출판사, 1999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李濟馬(박성식 역해), 서울, 집문당, 2003
7. 四象醫學의 原理와 方劑, 趙晁晟, 서울, 집문당, 2003